

# 소아암 초기 생존 아동의 학교생활 경험

진 주 혜(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아동간호학 교실)

**[연구목적]** 성공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는 소아암 초기 생존아동의 심리·사회적 재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소아암 초기 생존 아동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생존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생활 적응은 조기 중재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다양한 기초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서술적 다중사례연구의 주목적은 이러한 소아암 초기 생존 아동의 학교 생활 경험과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치료 종료 후 학교로 복귀했을 때 아동의 학교생활 경험을 생존 아동, 어머니, 교사 및 아동의 친구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자]** 서울 시내 소재 Y대학 부속병원의 소아암센터에 등록된 소아암 초기 생존 아동 중 완전 관해 치료 종료 후 학교로 복귀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령기 아동 6명과 각 아동의 어머니 6명, 단짝친구 4명, 그리고 담임교사 5명으로 총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문헌고찰을 통해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준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녹음기를 이용하여 각각의 대상자들을 면접하였다.

**[연구분석방법]** Yin(1994)의 사례연구방법에 근거한 유형조합(pattern matching)을 이용하여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학교생활 네 범주의 주요 의미를 파악한 후, 본 연구의 면접 결과들과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의 학교복귀와 관련된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교사의 준비된 인성 차원, 급우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노력, 그리고 아동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확인되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같이 노는 친구, 친구들에게 다르게 보이는 것, 친구와의 경험 공유, 그리고 아동에 대한 친구의 지식이, 학습활동에서는 방사선 치료로 인한 지능저하, 수학과목의 부진 및 특별교육 요구, 피로와 쇠약, 집중력 감소와 산만한 행동, 그리고 공격적 성격이, 마지막으로 학급생활에서는 잦은 결석과 부분적인 학급생활에의 참여가 문헌들과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새롭게 도출된 점으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동 스스로의 친구를 사귀거나 유지하려는 노력, 친구로부터의 가치인정을 갈망, 그리고 친구어머니의 친구관계에의 영향이, 학습활동에서는 글쓰기의 재능과 아동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 인식 저하가 새로운 의미유형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소아암 초기 생존 아동의 학교생활 경험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였다. 따라서, 교사와 친구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이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생활 경험을 이끌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아암 초기 생존 아동을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